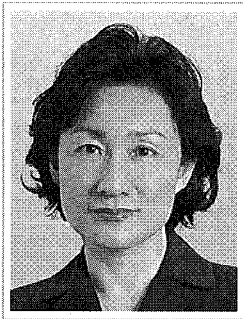




'생활 속 원자력문화 구현'에 앞장

박금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제13회 한국원자력기술상 대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 증진에 힘써 온 우리 재단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원자력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지나온 재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고자 한다.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여론 선도

1992년 3월에 설립된 우리 재단은 지난 14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교육·문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민 사회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적극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원자력이 발전, 비발전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등 원자력과 함께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생활 문화를 구현하는 데 힘써왔다.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재단의 지속적인 대국민 이해 증진

노력의 성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재단 설립 이전과 비교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1991년도 33.2% → 2005년도 70.6%),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또한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표 1〉 '최근 10년간 원자력 국민 인식 추이' 참조).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일궈낸 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 매체 활용 다양한 PA 활동 전개

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사회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주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전 방위적인 원자력 캠페인 사업을 전개했다.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는 물론 지하철, 버스 등 교통 매체, 극장,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표 1> 최근 10년간 원자력 국민 인식 추이

구분	1995	1997	2000	2002	2004	평균	2005	비교
원전 필요성	85.5	91.4	84.4	83.9	91.2	89.2	95.5	↑6.3
원전 안전성	30.5	38.6	33.6	37.6	59.4	50.1	70.6	↑20.5
폐기물 안전성	22.8	26.3	23.4	41.5	41.3	37.5	59.6	↑22.1
원전 건설(추가)	55.5	59.1	48.3	39.2	60.7	54.3	64.9	↑10.6
원전 건설(현수준)	27.1	28.2	34.0	48.5	28.3	33.2	28.1	↓5.1
거주지내 건설 찬성	12.4	22.1	10.9	16.2	26.0	22.1	34.8	↑13.7

고, 드라마나 과학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신문사와 공동으로 에너지 관련 특집기사 기획 연재, 전문가의 원자력 칼럼 기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원자력을 보다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간 원자력 문화 교양지 <원자력문화>와 원자력 관련 정보가 총망라된 <원자력기사 모음집>을 발간하고, 단행본, 홍보 책자, 동화, 만화, 원자력핸드북, 팸플릿, 홍보 영상물, 애니메이션 등 홍보 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제작, 보급하였다.

IT 활용 온라인 홍보 활성화

실시간 정보 공유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원자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웹진,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원자력 퀴즈, 플래시 공모전, 공익 캠페인 등 네티즌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원자력 홍보를 활성화하였다.

특히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에 관한 각종 뉴스와 정보를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원자력 정보 포털 사이트로서의 기능을 확충하였으며, 원자력정보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환경 관련 국내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일일뉴스레터(Nuclear Daily)', '주간뉴스레터(Nuclear Weekly)'로 제작 발송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5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프라인 대중 참여 홍보 강화

재단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생활 주변에서 원자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관과 이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1993년 개관한 대전 엑스포공원 전기에너지관 내 원자력관을 비롯하여 국립서울과학관, 고창 삼인종합학습원, 서울시 과학전시관 남산분관, 나주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등에 원자력 관련 실물 모형과 실험 장치, 그래픽 패널, 정보 검색 등 체험 위주 전시물로 꾸며진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최초의 트레일러 탑재식 '원자력이동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각종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전시회에 원자력 이동 전시관을 설치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매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사이언스데이에 원자력 모형물을 전시한 단독 부스를 마련,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원자력 퀴즈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과학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생활 문화와 함께하는 원자력 문화 창달을 위해 창작 뮤지컬 전국 순회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원자력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이해 제고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필요성, 안전성, 환경 친화성,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원자력 시설 시찰 사업을 실시, 원자력 이해 제고에 기여했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 원자력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장학사, 공무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원자력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진은 원자력, 물리, 에너지, 환경공학 분야의 교수들로서 강의는 원자력 및 원전 수거물의 이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해, 원자력 학습법 등 원자력 전반에 대한 심도깊은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 및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각계 전



〈표 2〉 재단 주최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내역

- 2005. 12. 20	합리적 에너지 확보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 2004. 11. 25	원자력과 사회적 합의에 관한 심포지엄
- 2003. 12. 2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원만한 확보 방안 심포지엄
- 2002. 11. 12	지속 가능 사회와 에너지
- 2002. 4. 19	원자력과 방송
- 2001. 10. 26	원자력정책과 정치적 이해 심포지엄
- 2000. 11. 8	고유가 시대와 에너지원 확보
- 1999. 12. 9	21세기와 3E
- 1999. 3. 9	원자력발전과 지역 사회에 관한 울산시민 토론회
- 1998. 10. 7	기후변화협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포지엄
- 1997. 11. 7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 심포지엄
- 1996. 4. 24	원자력-안전성과 환경에 관한 공개 토론회
- 1994. 4. 19	원자력에너지와 지구 환경 공개 토론회
- 1993. 4. 19	원자력과 지역 사회 발전에 관한 광주시민 토론회
- 1992. 9. 17	지구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

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자력 공개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여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수렴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의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표 2〉 재단 주최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내역 참조)

**차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설립 초기부터 재단은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견학, 원자력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워크숍,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프로그램 등을 4개 원전 및 원자력연구소, 원자력교육원, 환경기술원 등에서 운영했으며,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원자력계 임직원들이 일선 학교를 방

문하여 시행하는 원자력 일일교사, 원전 지역 청소년 대상 원자력 교육 등 어린이부터 학생, 교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원자력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재능을 키워줌과 동시에 원자력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매년 중고생 원자력 작문 모집과 원자력 포스터 공모전을 열고 있으며,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다문학상’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자력 연극 공연, 원자력 과학 테마 캠프, 청소년 원자력문예대전 개최 등 재미있는 문화 체험을 통해 원자력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교과 연구 등 올바른
교육 환경 기반 조성**

자라나는 세대가 푸른 자연과 깨끗한

곳한 에너지를 잘 지키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 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교육계와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차세대교육협의회’, 과학-환경 교사들의 모임인 ‘원자력 교육연구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 교육 과정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 교육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7차 교육 과정에 맞춘 <원자력 이해교육>을 발간하여 현장 연수와 직무 연수에 참가한 초·중·고 교사에게 배포하였으며, 차세대를 위한 3D 애니메이션 <행복에너지 원자력>을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과 청소년 쉼터 등에 제공하였다.

국내외 원자력 협력 활동 지원

재단은 원자력 문화를 확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개인들의 뜻을 모아 다양한 단체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직능별 기능별로 공익과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문화진흥회’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장생 단체로 영광, 월성, 울진, 고리 지역에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 원전견학, 원자력 세미나 개최,



재단 사옥 이전 기념 문화 행사(2005. 6. 21)에 참석한 주요 인사. 왼쪽부터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운찬(서울대 총장), 김용갑(국회 산자위원장), 이희범(전 산업자원부 장관), 박금옥(재단 이사장), 오명(전 과학기술부 장관), 한인수(금천구청장), 이종재(한수원 사장). 재단은 올해 9월 사옥 1층에 에너지 체험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원자력 특강 등 원전과 지역 사회와의 상호 교류, 화합,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단법인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여성 원자력 협력 단체로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한편, 원자력 현장 연수, 워크숍, 원자력 특강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바자회, 원자력 캠페인 등 문화 행사를 통해 원자력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교육연구회'는 2000년도에 현직 교사들이 원자력 연구 단체로 결성하여 원자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광역 단체별 지역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에서는 '원자력교육연구회'

의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원들의 자기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원 직무 연수를 매년 3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원자력 협력 기구로서 원자력 해외 시찰의 공식 창구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재단의 공식 사업은 물론 외부 기관이나 언론사 등의 해외 시찰 섭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과는 재단 설립 직후인 1992년 6월 원자력 문화 정보 교류와 시찰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정기적인 교류 협력 회의와 함께 로카쇼무라 방폐장 등 일본의 원자력 시설 시찰을 위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다. 또한 프랑스 원자력청과도 2000년부터 협력 협

정을 체결, 매년 '한·불 원자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기적인 국민 이해 기반 구축에 주력

흔히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 또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단기간에 형성된다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생활의 습관과 가치가 쌓여 이루어진다.

'원자력 문화' 또한 그렇게 형성되어진다고 본다. 첨단 과학 기술의 산물인 원자력을 생활 문화로 엮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 재단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교육을 '생활화'해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에너지 확보의 어려움을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 사옥 1층에 에너지체험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체험관을 통해 학생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생활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 홈페이지 '2005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2005. 12. 8)

제3의 공익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최근 고유가의 장기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을 겪으면서, 또한 중동 정세 불안과 지구촌의 온실 가스 감축 대세 등이 맞물리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은 물론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원자력을 '에너지 독립'의 대안으로 새롭게 평가하면서 야심찬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재단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다.

지난 해 11월 원자력계의 오랜 현안 과제였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016년 포화 상태에 이르는 사후 핵연료 처리, 고준위 폐기물, 원전 계속 운전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과제이며, 또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지난 20여년간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과 국력 낭비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국민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단은 정부 및 사업자, 시민 단체의 중간자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제3의 공익 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

공과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단의 역할이며 책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 건설에 앞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앞으로 '생활 속 원자력 문화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뢰, 커뮤니케이션, 창의,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미래 '차세대 에너지 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원자력의 이용가치를 바르게 인식시키고 확대해 나가면서 미래 에너지의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 원자력 전문 홍보 기관'으로서 세계의 원전 선진국과 후발국 간의 협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과 가치를 홍보하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제13회 원자력기술상 대상 수상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 재단 임직원 모두는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는 나침반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 ☺